

무안군, 창의적 종합 설계 운영 협약 체결

목포대학교-(주)누마루와 조금나루 관광 활성화 상호 협력

졸업 논문 대신 작품 기획·설계·제작 전 과정 경험 교육과정

무안군은 11일 무안군청에서 무안군수, 목포대학교 LINC 3.0 이상찬 사업단장, (주)누마루 김기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조금나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종합 설계(캡스톤 디자인)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창의적 종합 설계는 학생의 산업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누마루는 2022년 10월 무안군과 MOU를 체결하고 망운면 조금나루 일원 약 1만 2천여 평에 1,500억 원을 들여 풀빌라 등(403실) 무

안 조금나루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목포대학교는 조금나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종합 설계와 경진대회를 운영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제공하고 (주)누마루는 교육 운영 등 제반협력과 경진대회 상금(연 500만 원)을 지원하며 무안군은 우수 아이디어를 채택해 군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김산 군수는 이날 “지자체, 대학, 기업 간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군 관광 정책에 적극 반영해 조금나루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지 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영광군은 지난 7일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며 위대한 영광 주민자치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년여 간의 임기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과 함께 자치분권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자치분권 주요 동향을 소개했다.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의 위원장으로는 이정규 행정동우회장이, 부위원장으로는 강대홍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관계 공무원, 군 의회 의원, 민간·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군민이 주인인 영광,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산불없는 사계절 아름다운 산림 지킨다”

영암 금정 신유도마을, 주민 산불예방 교육 참여

영암군 금정면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 예방교육’에 신유도마을(이장 박발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해당 교육에서는 ▲산불 발생 시

신고 등 대처요령 ▲산불요인 사전제거 사업 방법 ▲산불관련 벌칙규정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참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금정면 신유도마을은 해발고지 600m 국사

봉 아래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골마을로, 2020년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023년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산림 환경에 대한 남다른 주민 의식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이일종 금정면장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산불없는 금정, 아름다운 청정금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2023 섬 튼립축제’ 개막식 개최

16일까지 아름다운 대광해변과 백만송이 튼립 꽃의 어울림



신안군은 임자도 ‘튼립&홍매화 정원’에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2023 섬 튼립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섬 튼립축제는 ‘취하라!! 튼립으로...떠나라!!! 신안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튼립 전통 만들기, 캐릭터처 그림그리기, 압화염서

만들기, 소금 불펜 만들기, 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 맞추어 튼립꽃이 만개하여 형형색색의 꽃의 자태가 인자 대광해변과 함께 어우러져 섬 튼립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백만송이의 다양한 튼립꽃이 피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축제장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이 희망을 안고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서산동 보리마당 23호·1897 개항문화거리 29호 추진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지 내 주거재생이 어려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목포시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 이후부터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2년 11가구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년 17가구, ‘22년 19가구에 주거향상을 목표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공사비 3억 원(34호)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공사비 5억 원(65호) 한도에서

가구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노후 주택의 경관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2층, 금화동 12-27) ▲1897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1층, 해안로 249번길 12-2)로 직접 방문·신청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지 내 주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월동기 꿀벌 피해농가 회복 ‘총력’

예비비 긴급 투입...피해농가에 입식비 지원

함평군이 겨울철 꿀벌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꿀벌 실종 및 폐사 피해가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관내에서 사육 중인 꿀벌 16,589군 중 57%에 달하는 9,381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피해 양봉농가의 회복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꿀벌 입식비를 긴급 지원한다. 군은 이동 양봉이 본격 시작되는 5월 초 이전 꿀벌을 입식 할 수 있도록 이월사업비 4억5,800만원을 확정하고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양봉기자재, 양봉예방약품 등 지원을 위해 도비 및 자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별도 지원했다.

김환동 축산과장은 “피해를 입은 꿀벌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